



Business Focus

43rd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43rd J.P.Morgan Healthcare Conference)

January 2025

—
삼성KPMG 경제연구원

Contacts

삼성KPMG 경제연구원

정미주
책임연구원
E mijujung@kr.kpmg.com

김나래
수석연구원
E nkim15@kr.kpmg.com

엄이슬
책임연구원
E yeom@kr.kpmg.com

본 보고서는 삼성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연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43 rd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요	3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본 2025년 제약·바이오 주요 트렌드	4
- ① 빅파마의 바이오텍(Biotech) 인수합병 기대	5
- ② 비만치료제, GLP-1 부상	8
- ③ AI 신약 개발 및 트럼프 2.0 시대 도래	10
- ④ K-바이오, 신규 모달리티·해외 시장 확장 정조준	13
2025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간 중 발표된 주요 투자	15

43rd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요

2025년 1월 13일~16일(현지 기준)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제43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글로벌 최대 바이오 투자 심포지엄으로 550개 이상의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기업, 약 8,000여 명의 업계 종사자 및 투자자가 참석해 발표와 비즈니스 파트너링 미팅 진행

제43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항목	내용
주최	• J.P.Morgan
목적	• 투자 심포지엄
장소	• 미국 샌프란시스코 (San Francisco)
기간	• 2025년 1월 13일~16일 (현지시간 기준)
참가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최측이 발표 및 파트너링 참가 기업을 사전 선정·초대 • 550개 이상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기업 • 8,000여 명 업계 종사자 및 투자자
컨퍼런스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발표(발표 기업 시가총액 9조 6,000억 달러 이상) • 비즈니스 파트너링 미팅 등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Why J.P.Morgan Healthcare Conference?

- ✔ **글로벌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컨퍼런스**
 - 1983년부터 매년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컨퍼런스로 주최측이 글로벌 주요 제약사와 바이오텍(Biotech), 헬스케어 등 유망한 기업과 관련 투자자를 사전에 선정하여 초청
- ✔ **신약 개발 및 투자 트렌드 확인**
 - 컨퍼런스는 참가 기업의 연간 마일스톤 및 전략,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임상시험 결과 등을 발표하는 트랙과 최신 기술 및 시장 동향, 규제 변화 등을 논의하는 파트너링 미팅 등으로 구성되어 제약·바이오 산업 트렌드 조망
- ✔ **글로벌 투자자 및 파트너 협력 기회 모색**
 - 참가 기업은 발표 및 네트워킹을 통해 기업 간 파트너십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 기술 거래 등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이 가능하고, 글로벌 빅파마는 컨퍼런스를 통해 대규모 인수합병(M&A) 발표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본 2025년 제약·바이오 주요 트렌드

2025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 본 제약·바이오 업계 주요 트렌드는 ‘빅파마의 바이오텍(Biotech) 인수합병 기대’, ‘GLP-1¹⁾ 비만치료제 부상’, ‘AI 신약 개발 및 트럼프 2.0 시대 도래’, ‘K-바이오 모달리티·해외 시장 확장’으로 도출

2025년 주요 키워드 : 바이오텍 인수합병, GLP-1 비만치료제, AI 신약 개발 및 트럼프 2.0, K-바이오

01

빅파마의 바이오텍(Biotech) 인수합병 기대

- 빅파마는 충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바이오텍 인수합병을 통한 중장기 전략 추진 예상
- 종양학 분야 강세 지속, 희귀의약품 시장 고성장에 따라 빅파마는 관련 바이오텍 인수합병을 통해 기존 파이프라인 강화 및 신규 사업 진출
- 특허 절벽에 따른 매출 감소에 대비하고자 인수합병 투자 기대

02

비만치료제, GLP-1 부상

-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48.4% 성장세를 보이며, GLP-1 기반의 비만치료제 부상 예상
- 빅파마는 비만치료제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경구용 비만치료제 시장을 공략하며 GLP-1 기반의 바이오텍 인수합병 또는 파트너십도 적극 모색 중

03

AI 신약 개발 및 트럼프 2.0 시대 도래

- 글로벌 AI 신약 개발 시장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40.2%로 높은 성장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엔비디아(NVIDIA)는 임상, 병리, 유전체 분석 플랫폼 분야에서 협업을 통해 시장 주도
- 트럼프 2.0 시대 도래에 따라 약가 인하 및 규제 완화 정책 변화 예상

04

K-바이오, 신규 모달리티·해외 시장 확장 정조준

-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K-바이오 기업들은 항체-약물 접합체(ADC)²⁾ 등 신규 모달리티로 포트폴리오 확장
-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롯데 바이오로직스, 휴젤 등 제품 다각화 뿐 아니라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해외 네트워크 강화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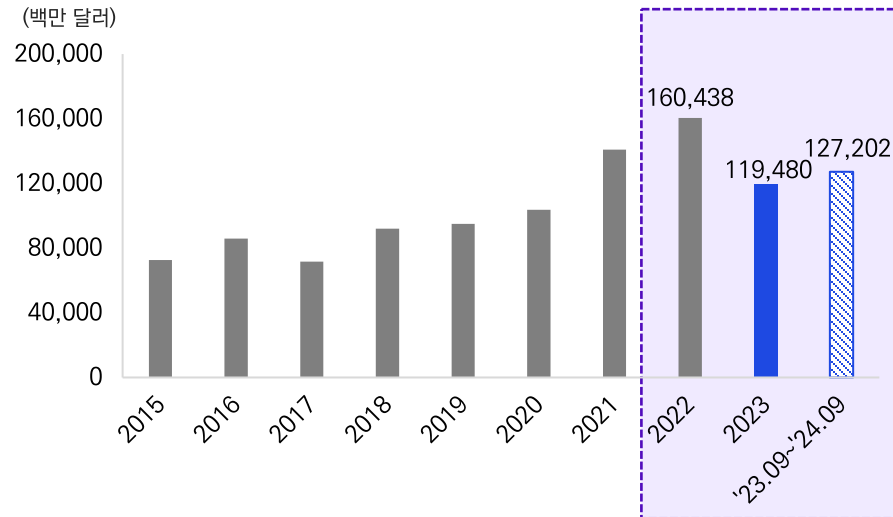
Note 1): Glucagon-like peptide 1(위장에서 분비되는 Incretin 호르몬 중 하나로, 경구로 섭취된 당이나 지방에 반응하여 소장의 L세포에서 분비되는 펩타이드 호르몬)

Note 2): Antibody Drug Conjugate(암세포 표면의 특정 표적 항원에 결합하는 항체(Antibody)와 세포 사멸 기능을 갖는 약물(Drug)을 결합 (Conjugate)시킨 표적 항암제)

① 빅파마의 바이오텍(Biotech) 인수합병 기대 (1/3)

글로벌 빅파마의 기업잉여현금흐름 추이와 2024년 인수합병(M&A) 거래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충분한 자금력을 확보하고 있는 빅파마의 바이오텍(Biotech) 인수합병을 통한 중장기 전략이 두드러지면서 낙관적인 제약·바이오 투자 시장 전망

글로벌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¹⁾ 잉여현금흐름(FCFF) 추이²⁾



Source: Pitchbook,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1): 2023년 글로벌 빅파마 매출액 Top 12(존슨앤드존슨, MSD, 화이자, 애브비, 사노피, 아스트라제네카, 노바티스, BMS, GSK, 일라이 릴리, 노보 노디스크)에서 Pitchbook 기준 FCFF 미제공사인 로슈는 제외

Note 2): Pitchbook 기준 각 사 연도별 FCFF 합계 및 2024년 9월 기준 최근 12개월의 FCFF 합계 (최우측) 제공. 단, 2023년 9월 기준 최근 12개월 합계 미제공사인 사노피는 2022년 6월~2023년 6월 데이터 사용

2024년 주요 인수합병(M&A) 거래 내역¹⁾

총 거래금액 1,471.5억 달러

- ✓ 2024년 상반기 40억 달러 이상 규모의 M&A 2건 체결
- ✓ 종양학&면역학 파이프라인 거래 집중

거래 일자 ²⁾	피인수 기업	인수 기업	거래 규모 (억 달러)	치료 분야
12월	알리아다 테라퓨틱스 (Aliada Therapeutics)	애브비 (AbbVie)	14	중추 신경계
10월	더마반트 사이언스 (Dermavant Sciences)	오가논 (Organon & Co.)	12	피부
8월	모픽 테라퓨틱스 (Morphic Therapeutic)	일라이 릴리 (Eli Lilly and Company)	32	면역
7월	아이바이오 (EyeBio)	머크 (Merck & Co.)	30	안과
6월	디사이페라 파마슈티컬스 (Deciphera Pharmaceuticals)	오노제약 (ONO Pharmaceutical)	24	종양
5월	엠브릭스 (Ambrx)	존슨앤드존슨 (Johnson & Johnson)	23	종양
4월	알파인 이문 사이언스 (Alpine Immune Sciences)	버텍스 제약 (Vertex Pharmaceuticals)	49	면역
3월	시마베이 테라퓨틱스 (CymaBay Therapeutics)	길리어드 사이언스 (Gilead Sciences)	43	간질환
2월	아이올로스 바이오 (Aiolos Bio)	글락소스미스클라인 (GSK)	11.3	호흡기

Source: Pitchbook, 삼성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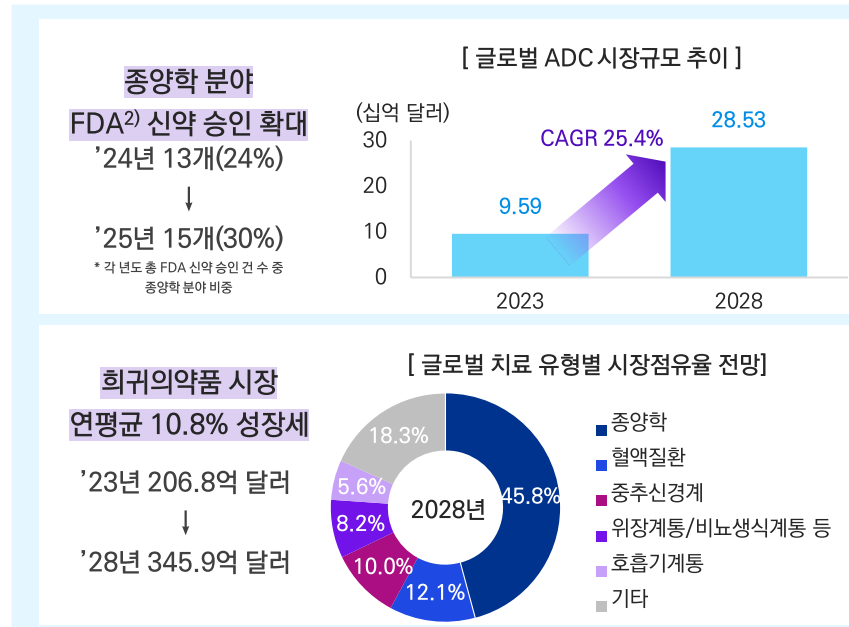
Note 1): Pitchbook 기준, 거래 발표 혹은 완료 내역

Note 2): 거래 완료일 기준

① 빅파마의 바이오텍(Biotech) 인수합병 기대 (2/3)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은 종양학 분야 강세가 지속되고, 미충족 수요가 높은 희귀의약품 분야도 고성장 예상. 이에 따라 빅파마는 항체-약물 접합체(ADC)¹⁾, 희귀질환 관련 바이오텍 인수합병(M&A)을 통해 신성장 동력원을 확보하고 파이프라인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

종양학(Oncology) 분야 강세 지속 & 희귀의약품 시장 주목



Source: FDA,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Antibody Drug Conjugate(항체-약물 접합체, 암세포 표면의 특정 표적 항원에 결합하는 항체(Antibody)와 세포 사멸 기능을 갖는 약물(Drug)을 결합 (Conjugate)시킨 표적 항암제)
 Note 2): Food and Drug Administration(미국 식품의약품)

기존 파이프라인 강화 및 신규 사업 분야 진출

<p>존슨앤드존슨 (J&J)</p>	<p>인트라셀룰러 테라피(Intra-Cellular Therapies) 146억 달러 인수 발표(2025 JPMH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추신경계(CNS, Central Nervous System) 질환 치료제 전문기업을 인수하여 조현병(Schizophrenia), 양극성장애(Bipolar Disorder) 치료제 추가 등 자사 포트폴리오 차별화 <p>엠브릭스(Ambrx) 23억 달러 인수(2024 JPMH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체-약물 접합체(ADC) 개발 전문기업을 인수 완료('24.05)하여 전립선암 치료제 임상 가속화 등 표적 항암제 파이프라인 강화
<p>글락소스미스 클라인 (GSK)</p>	<p>아이디알엑스(IDRx) 11억 5,000만 달러 인수 발표(2025 JPMH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장관 기질종양(GIST)¹⁾ 정밀의학 치료제 개발 전문기업을 인수하여 차세대 KIT 유전자 변이 억제제 선도물질(IDRx-42) 추가 등 소화기암 치료제 포트폴리오 강화 <p>아이올로스 바이오(Aiolos Bio) 11.3억 달러 인수(2024 JPMH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식치료제 개발 전문기업을 인수 완료('24.02)하여 임상 2상의 항-흉선 기질상 림프포이에틴(TSLP) 후보물질(AIO-001) 확보 등 자사 호흡기질환 및 염증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 강화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위장관 벽의 근육층에 위치한 카알세포 변이로 발생하는 희귀질환)

① 빅파마의 바이오텍(Biotech) 인수합병 기대 (3/3)

글로벌 빅파마의 주요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순차적으로 독점 생산권에서 풀리며 특허 절벽이 전망되는 가운데 매출 감소 우려 확대. 이에 대비하고자 잠재력과 수익성이 높은 시장 선점을 위해 인수합병(M&A) 투자 기대

빅파마, 특허 만료에 따른 매출 공백 가시화

- 2032년까지 45개 이상의 블록버스터 의약품 특허 만료가 예상되면서 다수의 제네릭(Generic Medicine) 또는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등장할 것으로 전망
- 머크, 길리어드 사이언스, 일라이 릴리 등 빅파마 최대 매출품목의 특허 만료 예상

기업명	제품명	분류	특허 만료 예상 시기 ¹⁾	2023년 매출액 (백만 달러)	매출액 비중 (%)
머크 (MSD)	키트루다 (Keytruda [®])	면역항암제	2028	25,011	41.6
	가다실 (Gardasil/Gardasil9 [®])	HPV ²⁾ 백신	2027~2030	8,886	14.8
길리어드 사이언스 (Gilead Sciences)	빅타비 (Biktarvy [®])	HIV ³⁾ 치료제	2025~2036	11,850	43.7
	젠보야 (Genvoya [®])	HIV 치료제	2029~2033	2,060	7.6
일라이 릴리 (Eli Lilly)	트룰리시티 (Trulicity [®])	당뇨병 치료제	2027	7,133	20.9
	버제니오 (Verzenio [®])	유방암 치료제	2029~2031	3,863	11.3

Source: 각 사 홈페이지,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2025년 1월 17일 언론보도 혹은 각 사 제공 자료 기준(국가별 차이 존재)
 Note 2): 인유두종바이러스 / Note 3):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특허 절벽에 대한 매출 대응 전략

일라이 릴리 (Eli Lilly)	스크피온 테라퓨틱스(Scorpion Therapeutics) 25억 달러 인수 발표 (2025 JPMH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 치료제 개발 전문기업을 인수하여 선택적 PI3Kα 억제제(STX-478) 확보 등 의학적 미충족 수요가 높은 분야 확대 2023~2024년 M&A를 통한 적극적인 투자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픽 테라퓨틱스(Morphic Therapeutic) 32억 달러 인수 완료('24.08) • 맵링크 바이오사이언스(Mablink Bioscience), 이머전스 테라퓨틱스(Emergence Therapeutics) 등 ADC 개발기업 인수 완료('23)
길리어드 사이언스 (Gilead Sciences)	2024년에 이어 M&A,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의지 표명(2025 JPMH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오 파마(Leo Pharma)와 염증성 질환 신약 개발 파트너십 체결 (2025 JPMHC) • 시마베이 테라퓨틱스(CymaBay Therapeutics) 43억 달러 인수 완료('24.03)
머크 (MSD)	주요 매출 비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의약품 특허 만료 시점 임박에 따라 전략적 비즈니스 투자가 필수적인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바이오(EyeBio) 30억 달러 인수('24.08), 프로메테우스 바이오 사이언스(Prometheus Biosciences)¹⁾ 108억 달러 인수 완료('2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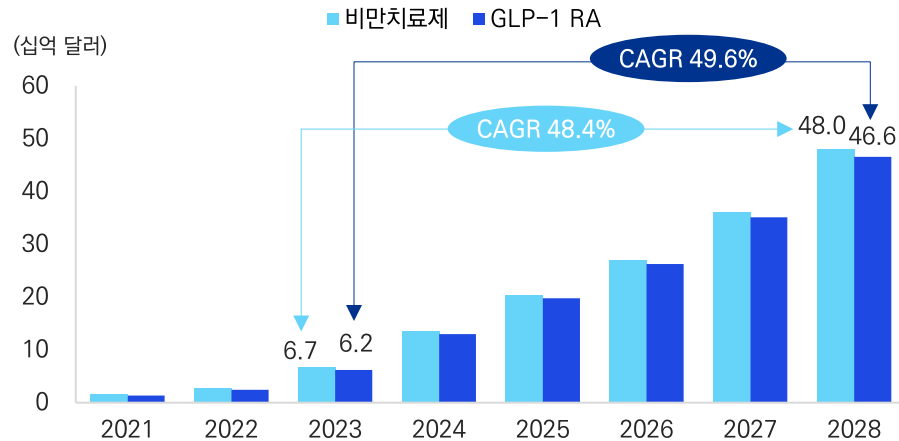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면역질환 신약개발 기업

② 비만치료제, GLP-1 부상 (1/2)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은 2028년까지 연평균 48.4%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GLP-1¹⁾ 기반의 비만치료제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일라이 릴리(Eli Lilly)와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 중심으로 시장 구도가 형성되어 있으며, 최근 비만치료제를 넘어 GLP-1 적응증 확대로 경쟁 가속화

GLP-1 기반의 비만치료제 시장 고성장

- 글로벌 비만치료제 매출은 2023년 67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연평균 48.4% 성장하여 2028년 480억 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
- 약리학적 제제 기준, GLP-1 수용체 작용제(GLP-1 RA)가 2028년까지 연평균 49.6% 성장세를 보이며 전체 비만치료제의 약 97% 차지할 것으로 전망



Source: 한국바이오협회,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Glucagon-like peptide 1(위장에서 분비되는 Incretin 호르몬 중 하나로, 경구로 섭취된 당이나 지방에 반응하여 소장 L세포에서 분비되는 펩타이드 호르몬)

일라이 릴리 & 노보 노디스크 비만치료제 시장 주도



위고비 Wegovy®(성분명 : 세마글루타이드(semaglutide))

- 2021년 당뇨병 치료제 ‘오젠펙(Ozempic®)’ 동일 성분으로 GLP-1 유사체 기반의 비만치료제 ‘위고비(Wegovy®)’ FDA 승인
- 심혈관계 질환 사망, 비치명적 심근경색, 비치명적 뇌졸중 등 주요 심혈관계 사건(MACE : Major Adverse Cardiovascular Event) 위험 감소에 대한 치료제로 적응증 확대
-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GLP-1/아밀린(amylin) 이중 작용제 아미크레틴(amycretin) 등 경구용 신약 개발 중



젠티바운드 Zepbound®(성분명 : 티제파타이드(tirzepatide))

- 2023년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Mounjaro®)’ 동일 성분으로 GIP/GLP-1 이중 작용제 기반의 비만치료제 ‘젠티바운드(Zepbound®)’ 개발하여 FDA 승인
- 폐쇄성 수면무호흡증(obstructive sleep apnea), 비만 관련 심부전(HFpEF¹) 등 환자 등을 대상으로 적응증 확대
- 오르포글리프론(Orforglipron, LY-3502970) 경구용 GLP-1 신약 개발 중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Heart Failure with Preserved Ejection Fraction(박출률 보존 심부전증)

② 비만치료제, GLP-1 부상 (2/2)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빅파마의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후발주자는 경쟁 우위를 위한 차별화 전략으로 기존의 피하주사 제형 대신 경구용 비만치료제 시장을 공략. 또한, 잠재적인 임상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텍과 인수합병 또는 파트너십을 적극 모색 중

빅파마, 경구용 GLP-1 비만치료제 개발 주목

<p>화이자 (Pfizer)</p>	<p>‘GLP-1 기반의 다누글리프론(danuglipron)’ 임상 파이프라인 공개, 경구용 비만치료제로 시장 진출 본격화(2025 JPMH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누글리프론(개발코드명 : PF-06882961)은 화이자가 자체 개발한 GLP-1 RA로 알려져 있으며, 혈당을 건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인슐린 분비량을 늘려 체중 감량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기전 보유
<p>암젠 (Amgen)</p>	<p>‘GLP-1/GIP 이중 작용제 마리타이드(MariTide)’ 임상 3상 프로그램 착수 공식화(2025 JPMH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만 외 심장, 신장, 간 등 관련 질환 치료 가능성과 보험 적용 등 차별화 전략 추진
<p>아스트라제네카 (AstraZeneca)</p>	<p>1일 1회 투여하는 경구용 GLP-1 기반의 신약 후보물질 ‘AZD5004’ 임상 2상 진행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ZD5004는 2023년 중국 에코진(Eccogene) 기업으로부터 도입한 경구용 GLP-1 RA로 중국 외 모든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상업화 독점 권리 확보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GLP-1 기반의 대사질환 바이오텍 투자 확대

<p>로슈 (Roche)</p>	<p>카뮷 테라퓨틱스(Carmot Therapeutics) 27억 달러 인수 완료 ('23.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만, 당뇨 치료제 개발 기업을 인수하여 임상단계 GLP-1/GIP 이중 작용제(CT-388)와 경구용 GLP-1 작용제(CT-996) 파이프라인 확보하며 비만치료제 시장 진입
<p>일라이 릴리 (Eli Lilly)</p>	<p>버사니스 바이오(Versanis Bio) 19억 2,500만 달러 인수 완료 ('23.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장대사질환 치료제 개발 기업을 인수하여 액티빈(activin) 약물 비마그루맵(bimagrumab)과 GLP-1 계열 인크레틴(cretin) 병용 약물 개발 등 비만치료제 파이프라인 강화
<p>노보 노디스크 (Novo Nordisk)</p>	<p>인버사고 파마(Inversago Pharma) 10억 7,500만 달러 인수에 이어 엠바크 바이오텍(Embark Biotech)까지 인수 완료('23)</p>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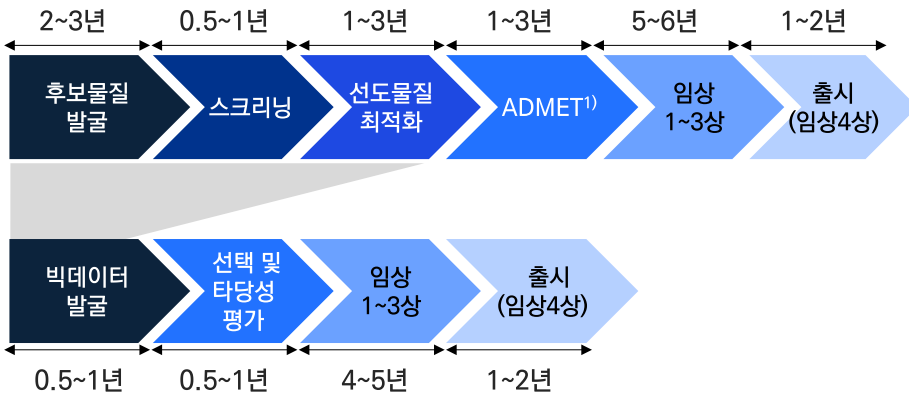
③ AI 신약 개발 및 트럼프 2.0 시대 도래 (1/3)

기존 신약 개발 과정에서 후보물질 탐색·물질 최적화 등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이 AI 활용으로 대폭 감축되면서 AI 신약 개발 시장은 2023년부터 매년 40.2%의 높은 성장율을 보이며 2028년에는 48억 9,360만 달러로 확대될 전망

신약 개발 과정: 전통적 신약 개발 vs. AI 기반 신약 개발

전통적인 신약 개발

10~15년 기간 및 평균 1~2조 원 이상 비용 소요, 1만 개 후보물질 중 1개 (0.01%)만이 신약으로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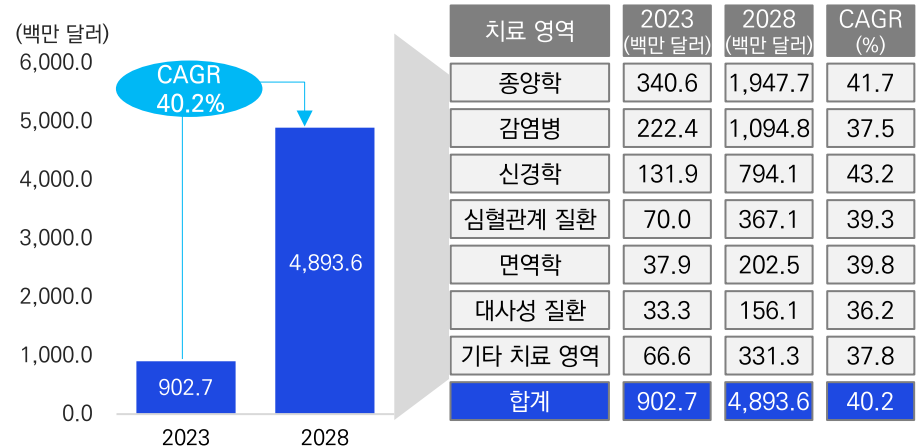
AI 기반 신약 개발

기존 후보물질 발굴~물질 최적화에 소요되던 4~7년을 1년으로, 이후 임상 단계에 10년 가량 소요되던 개발기간을 7~8년으로 감축 가능할 것으로 예상

Source: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1): Absorption, Distribution, Metabolism, Excretion, Toxicity(흡수, 분포, 대사, 배설, 독성 등 약물대사 및 독성에 대한 테스트)

AI 신약 개발 시장 규모 추이

- 전 세계 AI 신약 개발 시장 규모는 2023년 9억 270만 달러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028년까지 연평균 40.2%씩 성장하여 약 48억 9,360만 달러로 확대될 전망
- 치료 영역으로 구분할 경우, 종양학 분야 AI 신약 개발 시장 성장률이 동기간 41.7%, 신경학 분야가 43.2%로 나타나며 다른 분야 대비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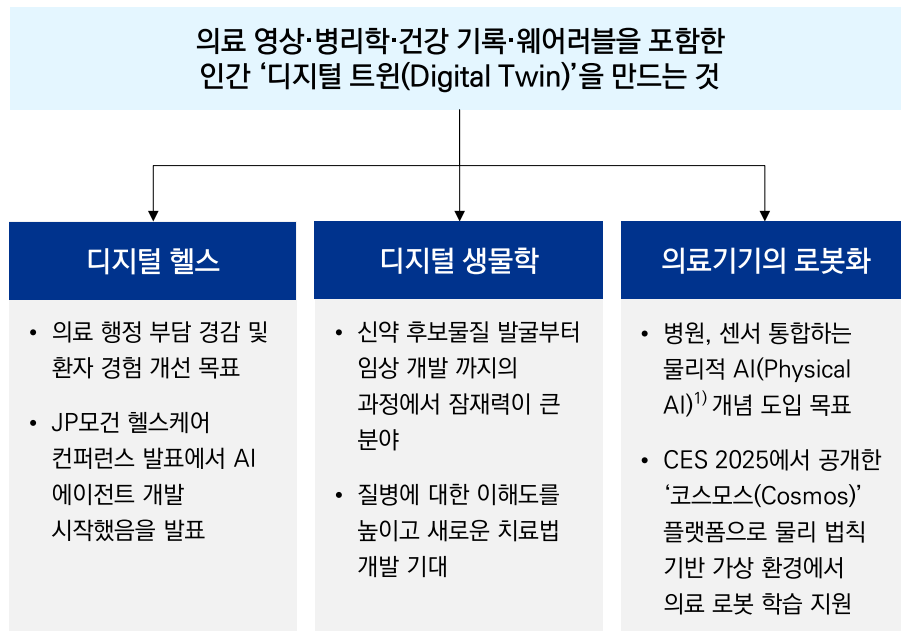


Source: MarketsandMarkets, 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③ AI 신약 개발 및 트럼프 2.0 시대 도래 (2/3)

엔비디아(NVIDIA)는 제43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해 헬스케어 분야에서 자사가 추구하는 AI 혁신 방향을 발표함과 동시에 아이큐비아(IQVIA),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 일루미나(illumina)와 파트너십을 발표하며 인류의 난제에 AI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제시


엔비디아(NVIDIA)의 헬스케어 분야 AI 혁신 방향






Source: 언론보도 종합

Note 1): 챗GPT와 같은 언어모델을 넘어 물리적 실체가 있는 로봇, 자율주행차량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물리적 존재가 AI를 통해 학습하고 작동되는 기술을 포괄하는 개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파트너십 발표한 엔비디아



- 맞춤형 AI 모델 개발** 
 - 아이큐비아: 임상 연구 서비스 회사
 - 헬스 데이터 네트워크와 AI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임상 시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약 출시 기간 단축을 목표로, 에이전트 AI 솔루션을 개발 중
- 차세대 AI 기반 디지털 병리학 플랫폼 개발** 
 - 메이요 클리닉: 종합병원
 - 2,000만 개 이상 슬라이드 이미지, 1,000만 건의 환자 기록 활용하여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생물학적 구조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임상에 대한 이해 고도화 목표
- 유전체 분석 플랫폼 고도화** 
 - 일루미나: 생명공학 기업
 - 유전체 분석 속도와 정확도를 고도화 해 신약 개발은 물론, 임상연구에도 유전체 분석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유전체 데이터 구축 지역 중 아시아에서 중국, 일본만 포함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③ AI 신약 개발 및 트럼프 2.0 시대 도래 (3/3)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취임함에 따라 약가 인하·규제 완화 정책에서 변화가 예상되나, 제약·바이오 산업 내 투자 수요가 기대되고 정책적 변화에는 기회도 존재하므로 지속적인 연구개발 등으로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것이 중론

약가 정책 전망

	제46대 바이든 (2021~2025)	제47대 트럼프 (2025~2029) (案)
약가 인하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가 인하 적극 추진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으로 메디케어(Medicare)¹⁾의 약가 협상 권한 최초 도입 • 인슐린 월 비용 \$35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및 투명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강조 • 최혜국 지위(MFN, Most Favored Nation)²⁾ 모델을 재도입해 미국 내 약가를 다른 국가대비 높지 않게 조정
규제 완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완화보다는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입장 • 공중보건의 안전성과 품질 강화를 위해 FDA 및 CDC³⁾의 규제 강화 • 보건 관련 정책의 투명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완화와 혁신 강조 및 FDA 개혁을 통한 약물 및 의료기기 승인 절차 단순화 • 예산 조정 및 새로운 기술 채택을 통한 신속한 승인 프로세스 도입 • 약가 및 보험 투명성 강화


Source: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트럼프 2.0 정부의 정책 동향과 국내 보건산업 영향 및 전망'(2025.1.17)
 Note 1): 메디케어는 미국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65세 이상 또는 일정한 자격 요건(말기 신장 질환과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을 앓고 있는 환자)을 갖춘 사람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Note 2): MFN 모델은 미국 약가를 다른 국가 중 최저 약가 수준으로 제한하는 정책
 Note 3):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제43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2.0 시대 관련 반응



제러미 멜먼(Jeremy Meilman)
JP모건 헬스케어 글로벌 투자 총괄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에 따라 정책적 리스크가 있어 시장과 특정 산업에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 존재... 그러나 미국 경제 지표가 긍정적이며 생명과학과 제약 서비스에서 IPO, M&A 등이 활발하게 일어나 강한 투자 수요가 있을 것”



알버트 불라(Albert Bourla)
화이자(Pfizer) 최고경영자

“새로운 행정부가 의료 환경 변화 측면에서 가장 중점에 두는 것은 무엇이고 그게 화이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가 핵심. 변화에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니 (정책 변화를) 선부르게 예단하지 말고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가 중요”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④ K-바이오, 신규 모달리티·해외 시장 확장 정조준 (1/2)

9년 연속 메인 트랙의 발표를 맡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1위 생산능력 유지를 위한 제2 바이오 캠퍼스 확장 계획과 본격적인 항체-약물 접합체(ADC) 의약품 생산 개시를 알림. 셀트리온은 글로벌 혁신 신약 기업으로 도약을 선언하며 ADC와 다중항체 등 총 13개 신약 개발 타임라인을 공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격적인 ADC 의약품 생산 개시

SAMSUNG BIOLOGICS

- 9년 연속 메인 트랙의 발표를 맡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4년 주요 성과로 최대 연간 실적과 수주 달성을 제시
 - 연간 수주금액 5조원 돌파하며,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이상 성장 예상 (연결기준 연간 매출액은 실적 기준 23% 상승)
- 향후 생산능력,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지리적 거점 등 3대 축 확장 전략 제시
 - 5공장 및 제2 바이오캠퍼스 건설: 2023년 4월 착공한 18만L 규모의 5공장은 2025년 4월 완공 예정이며, 제2 바이오 캠퍼스 건설도 2032년 완료할 계획
 - ADC 등 생산 포트폴리오 확장: 2024년 12월 ADC 전용 생산시설을 완공하였으며, 기존의 항체(mAb), 완제의약품(DP), 메신저리보핵산(mRNA) 분야에서 ADC까지 생산영역 확대
 - 일본 등 지리적 거점 추가: 글로벌 상위 20곳을 넘어 40위권 기업까지 수주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일본 도쿄에도 세일즈 오피스를 개소하는 등 일본 및 아시아 고객사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

* (참고) 삼성바이오에피스 -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Teva Pharmaceutical Industries) 파트너십 체결('25.01)¹⁾

Source: 각 사 홈페이지, 언론보도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1): 희귀질환 치료제 '에피스클리'(Epsqli, 프로젝트명 SB12, 성분명 에클리주맙)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상업화 파트너십. 에피스클리는 알렉시온(Alexion)이 개발한 솔리리스(SOLIRIS®)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 ADC·다중항체 신약 개발 타임라인 공개



- 셀트리온은 메인 트랙 발표에서 바이오시밀러 사업과 더불어 차세대 모달리티 신약 개발을 통해 글로벌 혁신 신약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투 트랙 전략을 선언
 - 2025년까지 11종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지난 해 조기 달성하였으며, 2025년부터 4개 신약 후보물질이 순차적으로 임상에 돌입할 계획이며 매년 새로운 신약 프로젝트가 이어질 것
- 2028년까지 ADC 신약 9개와 다중항체 신약 4개 등 총 13개 신약 파이프라인의 구체적인 개발 로드맵 공개
 -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후보물질 'CT-P70(이하 개발코드명)', 방광암 치료제 후보물질 'CT-P71' 등 기존 치료제를 개선한 바이오베터(Biobetter) ADC 신약을 선보일 예정
 - 이중특이적 ADC(Bispecific ADC)와 페이로드(Payload, 세포독성항암제) 조합을 통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듀얼 페이로드 ADC(Dual-payload ADC) 개발 진행 예정
 - 정상조직세포와 암세포 간 차이가 확실한 세포독성 연구 결과를 통해 종양 표적 외 독성 개선을 입증한 다중항체 항암신약 'CT-P72' 등을 개발 중

Source: 각 사 홈페이지, 언론보도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④ K-바이오, 신규 모달리티·해외 시장 확장 정조준 (2/2)

혁신 신약 개발기업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빅파마들의 관심이 집중된 폐질환 치료제 후보물질을 소개하며 기술이전 도모. 아시아·태평양 트랙(APAC)에서 발표한 롯데바이오로지스와 휴젤은 초기 물량 확보 및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해외 네트워크 강화 노력을 지속하는 중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롯데바이오로지스, 휴젤: 신규 모달리티 개발과 해외 네트워크 강화



- 혁신 신약 개발기업인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처음으로 메인 트랙에서 발표 기업으로 선정
 - 미중족 의료 수요가 높은 암 질환 및 섬유화 질환 치료 등을 목표로 다양한 신규 모달리티 기반의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있으며, 특히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폐질환에 주력
- 특발성 폐섬유증(IPF,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치료제 후보물질인 'BBT-877(개발코드명)'을 비롯한 주요 R&D 과제와 향후 기업 성장 전략 소개
 - 특발성 폐섬유증은 폐 기능이 상실되는 난치병으로 진단되어 부작용이 낮으면서도 폐활량 회복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신규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높아 글로벌 빅파마의 신규 전략 시장으로 부상
 - BBT-877의 글로벌 임상 2상 진행 현황 발표 및 1천 명 이상의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를 대상으로 52주간 투약하는 임상 3상 연구 계획도 최초 공개하였으며, 임상 3상은 글로벌 빅파마와 협력하여 2026년 상반기 진입 목표
 - 다수의 빅파마들과 BBT-877 기술이전 계약 타진을 위한 구체적 협의와 향후 임상 계획 등을 기반으로 기술거래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의

Source: 각 사 홈페이지,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 롯데바이오로지스는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을 갖춘 글로벌 TOP 10 CDMO 기업을 공언하며 청사진 제시
 - 2030년까지 송도 바이오 캠퍼스에 총 36만L 수준의 메가 플랜트 건설을 목표하고 있는 가운데 초기 수주물량 확보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강화 노력 지속
 - 자체 개발한 ADC 플랫폼 '솔루플렉스 링크(SoluFlex Link)'를 최초 공개하며, 이를 미국 뉴욕 시라큐스 바이오 캠퍼스에 적용. 이후 펩타이드 등 다양한 모달리티를 추가할 계획



- 휴젤은 글로벌 초일류 기업을 목표로 2028년까지 해외 진출 국가를 특신 80개국, 필러 70개국, 코스메틱 10개국 이상 확대 계획
 - 국내 시장 리더십 유지, 중동·북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진입 가속화, 수익성 강화,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 수립
 - 2025년 상반기 보툴리눔 독신 제재 '보툴렉스(수출명 레티보)'의 미국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글로벌 특신 1위 시장인 미국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현지 파트너사 베네브(BENEV)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Source: 각 사 홈페이지,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25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간 중 발표된 주요 투자

2025년 1월 17일 기준, 존슨앤드존슨, GSK, 일라이 릴리 등의 M&A 발표가 언론에 보도. 본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최대 규모의 투자는 존슨앤드존슨이 중추신경계(CNS) 질환 치료제 개발 기업인 인트라셀룰러 테라피를 146억 달러에 인수한 것으로 확인

구분	인수(투자) 기업명	피인수(피투자) 기업명	분야	거래규모	비고
M&A	존슨앤드존슨 (J&J)	인트라셀룰러 테라피 (Intra-Cellular Therapies)	중추신경계(CNS)	146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현병 및 양극성장애 관련 FDA 승인 우울증 치료제 '카플리타 (Caplyta, 성분명 : Lumateperone(루마테페론))' 확보 ITI-1284 기반의 범불안장애(GAD) 및 알츠하이머병 관련 정신증 치료제 등 임상단계 파이프라인 확보
	글락소스미스클라인 (GSK)	아이디알엑스 (IDRx)	위장관 기질종양(GIST)	11억 5,000만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KIT 유전자 변이를 표적하는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 표적항암제 후보물질 'IDRX-42'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FDA로부터 GIST 치료제를 위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및 희귀의약품 지정
	일라이 릴리 (Eli Lilly)	스콜피온 테라퓨틱스 (Scorpion Therapeutics)	중양학	25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방암을 비롯한 기타 진행성 고형암에 대한 임상 1/2상 단계의 경구형으로 개발 중인 'PI3Kα 억제제 프로그램 STX-478' 확보
투자	리제네론 (Regeneron)	트루베타 (Truveta)	유전자 데이터 분석	1억 1,950만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의 17개 제약사 및 병원과 협력하여 유전자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트루베타 게놈 프로젝트' 투자로 지분 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제네론 유전자 센터는 1,000만 명의 엑솜(Exome) 데이터를 분석하고 익명화된 의료 데이터에 대한 독점적 접근 권한 보유
	일루미나 (illumina)	트루베타 (Truveta)	유전자 데이터 분석	2,000만 달러	
	길리어드 사이언스 (Gilead Sciences)	레오 파마 (LEO Pharma)	염증성 질환	최대 17억 달러 (선금금 2억 5,000만 달러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구용 저분자 신약 후보물질 'STAT6' 프로그램들을 각종 염증성 질환 치료제로 개발
	애브비 (AbbVie)	심시어 파마슈티컬 (Simcere Pharmaceutical)	다발성 골수종	최대 10억 5,500만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중항체(trispecific antibody) T세포 인계이저(TCE) 'SIM0500' 개발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Business Contacts

제약·바이오산업 전문팀

Audit

황재남
부대표

T 02-2112-7609

E jaenamhwang@kr.kpmg.com

조승희
전무

T 02-2112-0846

E seungheecho@kr.kpmg.com

지동현
전무

T 02-2112-7662

E dchi@kr.kpmg.com

이주영
상무

T 02-2112-7881

E jooyounglee@kr.kpmg.com

엄준식
상무

T 02-2112-7858

E junsikuhm@kr.kpmg.com

박상훈
상무

T 02-2112-7839

E sanghoonpark@kr.kpmg.com

나재광
상무

T 02-2112-6877

E jra@kr.kpmg.com

Deal Advisory

민홍길
전무

T 02-2112-6709

E hmin@kr.kpmg.com

고병준
상무

T 02-2112-0742

E bgoh@kr.kpmg.com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